

동아리 만들어 함께 수행하는 불자들



과감한 개혁정신과 진취적 독립정신이 건국이념인 미국에선 새로운 종교도 그들 스스로 도입하여 성장 발전시켜간다. 이에 따라, 스님과 포교사의 발길이 미처 닿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불교클럽, 스터디그룹 등을 만들어 불경공부, 영상법회, 염불, 참선수행을 한다.

1월 6일 미국대승불교협회의 세년도우 쉬시 처사는 중부위스콘신의 경우 상주하는 승려나 법사가 없어 현지의 40 남지 도반들이 직접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전법과 자비를 함께 행한다고 알려졌다. 이 모임을 만든 중 하나인 엘리스 커피 보살은 이곳이 완전히 열린 공간임을 강조한다.

“여러 크리스천 이웃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고서 한층 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됐다고 말하죠.”

미국은 故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뒷날 스님을 평화상 후보로 천거할 만큼 종교 문화적으로 진화된 나라다. 배교나 마귀에 쫓겼는지 눈에 핏발을 새우는 미개인들의 땅이 아닌 문명국가에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인 중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변호사인 윌리엄 부처 처사는 불교가 자신의 생업은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 균형각각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내 삶의 거친 모서리를 다듬어주는 불교는 무엇보다도 남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가르친다. 자칫 참선을 홀로 고립된 수행으로 아는데, 내 경험 상,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도반들이 하나하나 쪼개지기도하는 한 마음이 뭉쳐서 강력하고 불가사의한 결집된 시너지를 생성하며 또 서로 나눌 수 있다.”

스티브 바렐트 처사는 불교는 ‘삶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이므로 어떠한 종교적 절대성이나 배타성도 발 디딜 틈이 없다 단언한다.

“35년째 참선을 해온 나는 불교가 세상과 나를 맺어주는 심오하고 실용적인 길임을 잘 안다. 현대의 종교는 인간을 ‘더 큰 그림’으로 안내하는 트인 길’이 아니라 한다. 불교에는 교리적인 독선과 강제성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의문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장려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교를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다.”

출처: BMU · 편역: 성유스님

“불교엔 삶의 환희와 활력소가 있죠”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영화배우 나옴이 왓츠



스티들이 추구하는 덕목은 ‘욕구 제어’
“더 갖고 싶은 마음 추스를 줄 알아야”

1968년 영국 태생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란 나옴이 왓츠는 월마트의 점원 때부터 상급한 흥인력의 소유자며 집중력과 깊이를 지닌 연기자다. 이른바 큰물에서 놀기 전에 B급 영화를 떠돌던 우울한 과거마저 환하게 웃어넘기는 그녀는 늘 솔직담백하다.

오랜 친구인 니콜 키드먼에 비해 늦깎이나 결코 못내기가 아닌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영화와 미니시리즈로 대성공을 했다. 공포물 마니아들은 그녀를 ‘육수수 발의 아이들’의 명배우로 치지만 할리우드에선 아직까진 그저 잘나가는 신인 정도다.

그녀는 ‘사랑의 전설’ ‘괴행성’에서도 상당한 기량을 보였으며 ‘멜홀랜드 드라이브(2001)’와 ‘링(2002)’으로 할리우드의 스타 대열에 끼게 됐다. ‘멜홀랜드 드라이브’는 흥행보다는 그녀의 출중한 열연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은 수작이다.

이름 발판으로 그녀는 이듬해 ‘링’에서 흥행과 연기에 동시 대성공을 거뒀다. 그 오랫동안 꿈꾸던 명성과 재산을 죄다 얻은 것이다. 그런 그녀가 어인 까닭에 불과 몇 해 뒤 ‘허울 좋은 너울’을 찍다가 불문에 들어서게 됐을까?

그걸 유추하자면 약간의 근방이 필요하다. 누구나 알듯, 목적이식과 성취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 존재이유다. 목표가 없는 삶은 떠도는 물풀이나 허수사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목표의 설정과 추진은 현실적인 자기단련이자 사바세계 속의 엄격한 수행정진이다.

목표라는 뜬구름은 욕망의 노예로 끌려 다니다 허우적대며 빠져죽고 마는 집착의 늪과 다르다. 무릇 자아가 트인 이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욕망을 조절한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말처럼 쉽지 않다.

하런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Where to start? And where to stop?) 불교는 바로 그 지점을 일깨워

주는 길잡이다. 더욱 더 갖고 싶은 마음 추스르는 욕구제어, 그것이 세속적 목표에 다다른 할리우드 스티들이 불교에 추구하는 덕목이다.

이를 보라, 곧 통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무량무계의 깨달음이라 한다. 늘 참선을 하고 팔목에 단주를 끼고 다니는 그녀는 날로 불심이 새로워진다 했다.

“불교엔 큰 환희와 활력소가 담긴 건 분명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된 불자인지는 아직 잘 모르니 어떡하죠?” 별 걱정을 다 하는 그녀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서둘러 마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알려하는 것도 탐욕이요. 성불의 뜻도 지나치면 집착이랍니다. 나옴이 보살님게선 구도심 만으로도 이미 고우세요.”

성유스님

실리콘밸리서 불교영화 감상회

세계적 최첨단과학기술의 요람 실리콘밸리의 불교모임인 실리콘밸리 샴발라는 2008년도 전법기획의 일환으로 1월 12일부터 불교영화 시리즈 감상회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저녁 7시30분 신년대교회를 겸해 상영된 한국 불교영화 중 대표적인 수작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노승과 고아 동승, 젊은 스님의 인연을 그린다. 열반을 앞둔 혜곡 스님은 자신이 아는 참선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한편, 젊은 스님과 동승은 자신들의 지난 행업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하려 한다. 이윽고 노승이 떠나자 남은 두 사람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깨우침에 이르고자한다. 이러한 불교영화들은

미국 전역의 사찰, 포교원은 물론 지역사회, 대학 캠퍼스 등 수많은 불교 동아리들을 돌며 연중 전법활동을 펼친다.

영국인 5명 중 한 명은 일생 동안 최소한 한 번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나 대부분 전혀 치료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스넬의 런던불교센터는 우울증의 근본원인에 대처하고자 2006년 정각인지요법(MBCT) 과정을 개설, 불교전용 재빨린 비디오 상그라를 통해 무료 방영하여 호평을 받아왔던바, 금년 1월부터는 그간 임상케이스 스터디 등을 보강한 신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초교생에 성경 보급 위한 판결

1월 9일 미 연방법원은 세인트루이스 외곽 아나폴리스의 사우스아시안학교 당국이 국제기독교연합회에서 학군 내 초등학교 5학년 생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도록 허용해온 오랜 관례가 신앙의 자유와 모든 종교의 기회평등을 명시한 연방법에 저촉되는 위헌이라 판결했다.

최근 미국에선 불교의 급진장에 이어 바하이, 사이언토플 등 소수 종교가 퍼져가고 있는바, 특히 9-11사건 이후 피해자가족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기독교도인 약 2만 명이 매년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있다.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Not far from Buddhahood

—참 대단한 불성이시요



An American student asked the Japanese priest Gason, "Have you read the Christian Bible?" "No, please read it to me," asked Gason. The student opened St. Matthew and read,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shall worry about itself." Gason smiled. "Whoever uttered those words I consider an enlightened man." The student continued, "And it shall be given, seek and you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 For everyone that asks receives, and he that seeks finds, and to him that knocks, it shall be opened." Gason nodded again. "That's excellent! Who ever said that is not far from Buddhahood."

미국학생이 가산이란 일본스님께 물었다. “기독교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그러자 스님이 부탁했다. “아니요, 좀 읽어주시겠소?” 학생이 마태복음을 펼쳐 읽었다. “너희는 내일을 걱정 말지니 내일은 그때 스스로 걱정하리라.” 가산 스님이 빙글 웃었다. “누가 그 말을 했던 큰 깨우침을 얻은 분이군요.” 학생이 옮겼었다. “누구든 청하면 주어질 것이며, 구하면 얻을지니, 두드리는 지에 열리리라.” 스님이 또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군요! 누가 그 말을 했던 참 대단한 불성이시요.”

번안: 성유스님/그림: 이태수

2008년 ‘제2회 선리연구원학술상’ 및 ‘제4차 월례발표회 발표자’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제2회 선리연구원학술상 공모

- 공모주제: 불교(불교학, 불교사, 불교사상, 불교문학 등)와 관련한 자유주제
- 지원자격: 해당 분야 박사과정 수료 이상,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
- 선정인원(상금): 4명(우수상 1명 500만원, 학술상 3명 각 300만원)
- 제출서류: ① 연구계획서: A4 10매 내외의 자유 형식, ② 최근 5년간 연구 실적목록 및 목록상 실적물 각 1부, ③ 이력서(주소·전화번호·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 제출기한 및 발표: ① 제출기한: 2008년 1월 17일(목)~1월 31일(목) 오후 5시까지, ② 선정 및 통보: 2008년 2월 11일(월)
- 주의사항: ① 선정자는 2008년 본 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② 발표논문은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③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 학술지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제4차 월례발표회

- 발표주제: ①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사상의 주요쟁점 및 연구방법론 ② 한국불교사와 한국불교사상연구 ③ 한국근현대불교문화(불교문학·불교음악·불교미술 등) ④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선학원 ⑤ 한국근현대불교와 관련된 모든 분야
- 발표문 분량: A4 5~6매 3) 발표자격: 박사과정 이상자
- 발표일시: 2008년 2월 22일(금)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 신청기간: 2008년 1월 17일(목) ~ 1월 31일(목) 오후 5시까지
- 특 전: ① 발표비: 1인당 30만원 ②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③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문의 및 서류접수

주소: 110-240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82번지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전화: (02)734-9653(팩스 734-9657)
홈페이지: http://www.seonhakwon.or.kr/seonli | 대표메일: seonhakwon@paran.com

韓國 禪理研究院

출강 및 통신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7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사찰·포교원 등독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로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탐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2008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사무국(우편·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